

국토교통부, 고향가는 길 방역과 교통안전에 만전

- 1·2차관·대공위원장 명절 앞둔 주요 교통현장 찾아 방역·안전관리 강조 -

-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월 20일(금) 주요 교통시설 현장을 찾아 특별교통대책 준비상황과 코로나-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.

- 먼저, 대전역을 방문한 이원재 1차관은 “작년 추석에 이어 올 설에도 좌석발매 제한 없이 전좌석 예매가 허용된 만큼 이용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철도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” 이라면서,
 - “지난해 열차 궤도이탈 등 잇따른 사고 발생으로 철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설맞이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오실 수 있도록 안전 사고 예방에 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” 을 당부하였다.

- 어명소 2차관은 서울역을 찾아 “서울역은 수도권에서 전국 각 지역으로 이동하는 핵심 관문역으로, 귀성·귀경객의 집중으로 서울역사 내 혼잡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” 면서,
 - “안내인력 등을 충분히 배치하여 혼잡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” 을 강조하였다.

- 이어서, 어 차관은 서울강남고속터미널을 방문하여 터미널 안전관리 현황 및 코로나-19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다.
 - 터미널 관계자로부터 특별교통대책 이행상황을 보고받은 후, 어 차관은 “올해 설은 지난 추석에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두 번째로 맞는 명절로 국민들의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증차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내 가족이 탄다는 마음으로 안전운전해 줄 것” 을 주문하였다.

- 아울러, “설 연휴 동안 코로나-19가 재확산 되지 않도록 승객들에게 버스 탑승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가급적 자제해 달라는 방역수칙을 적극 안내” 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.
- 마지막으로,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를 찾아 “최근 방음터널 화재, 다중추돌 사고 등 안전한 이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고향을 다녀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” 을 당부하면서,
 - “특히, 많은 국민들이 자가용승용차를 이용하여 고향을 방문하는 만큼, 도로 살얼음 등 겨울철 위험요인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,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여 줄 것” 을 강조하였다.
 - 또한, “많은 사람이 찾는 휴게소, 졸음쉼터는 수시 소독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” 을 거듭 당부하였다.

2023. 1. 20.

국토교통부 대변인